

*Evangelization Helps us Begin Again

*복음화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돕는다.

운동에 관한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비디오 중 하나의 제목이 “등뒤로 양손을 서로 잡을 수 있는가?(큰 문제입니다!)입니다.” 운동선수는 한 손을 머리 뒤로, 한 손을 등 뒤로 하고 손가락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유연성은 그들이 적절하게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체에 대한 물리적 진단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측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조치는 선교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예수님의 추종자는 그분을 공유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찾고, 온 세상이 그분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현 대축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 ‘등장’을 뜻하는 기념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를 보면서, 우리는 정신 건강에 대해 세가지로 진단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 만약 여러분이 좌절하는 사람이라면, 영적 진단은 낙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느 부분의 성장을 원하시는 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번 강론의 제목을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붙였습니다.

제 1 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이사 60:1, 3-4).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나라가

너의 빛으로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십니다. 요점은 하느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살아남은 카톨릭 신자? 번창한 카톨릭 신자? 아니면 비참한 카톨릭 신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선물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그분의 빛을 어둡게 합니다. 만약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끌릴 것입니다.
-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매력적인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들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마더 데레사 성녀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이 거룩한 누군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저는 제 형과 종종 이 사실을 사제의 직분에 대한 진단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제직을 잘 해나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와 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싶어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스스로 사제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에 끌리지 않는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아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상담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녀들을 돕기 전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1독서에서,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이사60:4).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저항할 때, 그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자기 자신을 돌보십시오! 교리 문답서에는 정당한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육체는 영혼을 섬기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몸을

돌보십시오”(<https://www.ccel.org/ccel/teresa/life.viii.xii.html>). 라고 썼습니다.

- 나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주말 피정에서 돌아온 후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찬 것을 봤습니다. 올해는 자신과 자기 주변을 위해 이것을 해보십시오.

2) 오늘 우리가 기도한 시편에는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게 하소서”(시편72:8). 라틴어로는 “Et dominabitur a mari usque ad mare.”로 번역됩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가 캐나다 국가의 모토이기 때문에 캐나다 여권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요점은, 캐나다가 설립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노골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장 깊은 존재이며, 우리는 이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 우리가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하느님께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느님이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서 삶의 문제를 고치시는 분으로 보십니까?
- 일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라면 자신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 “예수,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만 너는 너가 크면 그분의 언약을 지킬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마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하셨을 겁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더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들의 삶을 더 좋게 하지만, 반듯이 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 증거는 우리가 믿는 것을 뒷받침 합니다. 그것은 강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의 삶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같은 말을 하는 무신론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제 아이들이 진실된 것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희망과 노력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알파에 대해 열광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복음화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면, 다시 시작 하고, 올해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읽고, 우리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하십시오. 예를들어, 해답을 위해 catholic.com 나 magiscenter.com 에 들어가 보십시오.

3) 제2 독서에 바오로 성인은, “형제 자매여러분: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에페3:2). 라고 씁니다. ‘나에게 주신 하느님 은총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직무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는 주인의 가정을 관리하는 집사를 일컫는, ‘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 卜 씘에서 기억하듯이, 종들에게 그들의 원무를 설명해야 합니다.

- 우리가 전도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오직 옳은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 4:16)라고 가르치므로,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찾도록 도와야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우리가 임무를 잊어버리는 6가지 이유와 몇가지 해결책입니다.

1. 우리는 기껏해야 평범한 현재의 가톨릭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성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Bl. Carlo Acutis는 아마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비디오게임을 했던 첫번째 성인이고 그의 웹사이트는 아직도 운영중입니다.
2. 집중이 안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쁘고, 새해는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목표를 분별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이틀전에 우리가 이야기 했듯이(<http://thejustmeasure.ca/2021/01/01/begin-again-by-going-to-the-heart/>), 여러분의 마음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3. 우리는 영적 자아도취에 빠져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기분이 좋고, 예를 들어, 여러분을 돌보는 것에 대한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우리 모두가 편안함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도전해야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4.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오직 나의 행동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저의 행동을 지켜봄으로써, 아이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일하며, 절대 전자 기기 사용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독실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높고 낮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5.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이유라면 여러분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 놀라운 실용적인 도구들이 있는 uevangelize.org에 들어가 보십시오.
6. “저스틴 신부님, 저는 부끄럼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넘어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므로, 누구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2020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십시오!

- 마지막으로, 고무적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존 보스코 성인은 한번은, 수정같은 물, 황금 나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찬, 천국같은 곳에 있는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이 있는 꿈을 꿔왔습니다.
 - 어느순간, 존 보스코 성인이 도미니코 성인에게, 그가 너무나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그의 학교에 있는 남자 아이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많은 그의 행복한 아이들을 보았고, 도미니코 성인은 그가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사람들, 또는 하느님께 가는길로 보내진 사람들과, 그들의 구원이 정말로 가능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셀 수 있으면 세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대단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다면, 그들은 많이, 더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격려와 도전입니다.

- 그리고 존 보스코 성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이
훈계를 듣고 큰 한숨을 내 쉬었고, 미래를 위해 하느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Forty Dreams of St. John
Bosco*, 64-65). 선교는우리가 다시 시작하는것을 돕습니다.